

소견서

“회원들과의 소통 경험과 준비된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도약하는 대한환경공학회”

< 공 약 >

1. 세대와 소속을 아우르는 맞춤형 회원 지원 프로그램 구축
2. 창립 50주년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KSEE 2050' 특별위원회 설립
3. 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 분야 플랫폼 역할 강화
4.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 수 있는 학술교류 축제의 장 마련
5.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지회 활성화

존경하는 대한환경공학회 회원 여러분,

1978년 첫걸음을 내딛은 우리 대한환경공학회는 지난 47년간 수많은 선배님들과 동료들, 후배 회원님들의 헌신과 기여로, 회원 수 약 11,000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환경 분야 학회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학문적 기반이 약했던 시기에 학회가 베풀어주었던 따뜻한 울타리와 든든한 디딤돌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학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모든 구성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종신회원으로서 학술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학술위원회 부위원장(20대), 제5회 IEEC 준비위원(21대), 총무이사(22대), 기획위원장(23대)을 거쳐 현재 학술위원장(24대)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애정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8년 창립 50주년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며 새로운 5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간 제가 반드시 실천할 다섯 가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1. 세대와 소속을 아우르는 맞춤형 회원 지원 프로그램 구축

인구 감소,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학문 간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환경공학의 미래를 이끌 인재 확보와 모든 구성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토대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저는 각계각층의 회원님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학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투자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최근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확대로 환경공학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이끌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대한환경공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가학술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11월 추계학술대회 등록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교수님의 대학원생 유치와 연구자 및 산업계 차세대 인재 양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대학원생 연구 환경 지원**

R&D 예산 축소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가 학술위원회에서 시작한 'KSEE Travel Award' 를 연 2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학술 교류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원생 팀 경진대회를 신설해 개인 연구 역량뿐 아니라 협업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산업계 회원과의 동행**

산업계 전문가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학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산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산업계 의견을 학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회원님들의 환경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23대 기획위원장 시절 시작한 박사 후 연구원 그룹 'PIVOT'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 홍보 및 리크루팅 네트워킹 행사를 학술대회에서 매년 정례화하겠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포용**

'외국인 유학생 환경공학 학술제'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등 유관 학회들과 협력해 국내 연구 환경 적응과 글로벌 인재 성장을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창립 50주년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KSEE 2050' 특별위원회 설립

2028년 대한환경공학회 창립 5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AI 등 거대한 도전에 대비해 환경공학의 역할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KSEE 2050'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습니다. 전 세대의 지혜를 모아 5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2050년을 향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환경 기술과 정책을 선도하는 학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26년 상반기: 'KSEE 2050' 특별위원회 발족
- '26~'27년: 분야별 미래전략 보고서 발간
- '28년: 50주년 기념행사와 비전 로드맵 선포



3. 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한 환경 분야 플랫폼 역할 강화

복잡하고 다층적인 환경 문제는 한 학회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타 환경 학회와의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학문과 세대, 산업을 아우르는 환경 분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4~5개 주요 환경 학회가 참여하는 '신진연구자 통합 포럼'을 신설하여, 젊은 연구자들이 학회의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교류하고 융합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환경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포럼과 간담회 정례화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 R&D 과제 공동 제안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 및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공학을 비롯한 환경 분야 전체의 정책 영향력과 사회적 존재감을 한층 높여겠습니다.



4.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는 학술교류 축제의 장 마련

학술대회는 단순한 발표의 장을 넘어, 엄숙함 속에서도 즐거움과 재충전이 있는 축제여야 합니다. 2024년 학술위원장 시절 준비했던 '여수 밤바다 선상 크루즈 만찬'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학술대회부터는 'Insight Party'와 'Storytelling Night'를 시범 운영하여 학술 교류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서, 연구자들이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Insight Party**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토크 콘서트
- **Storytelling Night** : 산학연 전문가 및 해외 과학자의 생생한 경험담과 멘토링



5.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지회 활성화

학회의 진정한 힘은 중앙과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때 발휘됩니다. 각 지역 지회가 지역 환경 현안 해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회장님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본부와 지회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따로 또 같이' 성장하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회장직을 명예가 아닌, 회원과 학회를 위해 헌신하는 책임의 자리로 여기겠습니다. 지난 20여년간 그래왔듯 앞으로의 2년도 가장 낮은 자세로 회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약속드린 공약들을 반드시 실천해 가시적인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학부 환경공학도에서 지혜로운 원로 회원까지, 학계/산업계/연구계의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환경공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열정을 학회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바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대한환경공학회 제25대 회장 후보
맹승규 올림